

제 목 : 부울경 권역의 산업연계에 대한 동태적 분석 및 지역산업정책적 과제 도출

-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이근재,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부울경 권역의 산업연계에 대한 동태적 분석 및 지역산업정책적 과제 도출”을 주제로 지역경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음

※ 주요 내용은 <붙임>의 요약 참조. 전체 보고서는 한국은행 부산본부 홈페이지에 게시. 동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님

문의처 : 경제조사팀 조사역 문수성

Tel : 051-240-3853 Fax : 051-240-3859 E-mail : bokbusan@bok.or.kr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보도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지역본부-부산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울경 권역의 산업연계에 대한 동태적 분석 및 지역산업정책적 과제 도출(요약)

I. 연구목적

-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집중 및 지역, 권역간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울경 권역도 경제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부울경 권역 내 지역간 연계 강화를 통해 권역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생력있는 경제공동체로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
- ⇒ 본 연구에서는 부울경 권역 내 산업간 연계에 관한 동태적 분석을 통해 권역 내 산업별 연계구조의 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권역의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산업정책적 과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

II. 부울경 권역 산업연관 구조

- 분석기간 중* 부울경 권역 내의 산업연계는 약화된 반면, 각 지역의 수도권과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강화
- * 2005년과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두 시점을 비교
- 부산, 울산 및 경남 모두에서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를 권역 내 타 지역과 거래하기보다는 대체로 수도권과 거래하려는 경향이 심화됨
- * Hirschman(1958)에 따르면 중간재 투입구조가 생산유발효과의 크기 결정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중간재 거래 관계를 중심으로 산업연관 구조를 분석
- 중간재를 수도권에 판매한 비중과 수도권에서 구매한 비중은 부산(각각 +0.9%p, +0.8%p), 울산(+3.9%p, +2.9%p), 경남(+3.3%p, +2.2%p)에서 모두 증가함

— 반면 동남권내 타지역과의 거래(판매 및 구매) 비중을 살펴보면 부산(각각 +0.7%p, -3.4%p), 울산(-1.9%p, -0.2%p) 경남(-2.9%p, +0.7%p) 모두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침

- 한편 중간재 투입계수와 총구매 변화를 이용해서 중간재 거래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투입계수와 총구매 모두에서 권역내 거래가 줄어든 반면 수도권과의 거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동남권 생산 중간재의 지역별 판매 비중

구매지역 생산지역	수도권	기타 권역	지역별 판매 비중			
			부산	울산	경남	
2005년 (A, %)	부산	12.2	16.7	45.9	12.9	12.3
	울산	20.7	25.3	5.1	41.5	7.3
	경남	14.4	21.5	6.7	6.9	50.6
2015년 (B, %)	부산	13.1	13.3	47.7	10.1	15.8
	울산	24.6	21.6	4.1	43.2	6.4
	경남	17.7	16.3	4.5	6.2	55.3
비중 변화 (B-A, %p)	부산	0.9	-3.4	1.8	-2.8	3.5
	울산	3.9	-3.7	-1.0	1.6	-0.9
	경남	3.3	-5.1	-2.2	-0.7	4.7

동남권 구매 중간재의 국내 생산지역별 비중

판매지역 구매지역	수도권	기타 권역	국내 생산지역별 비중			
			부산	울산	경남	
2005년 (A, %)	부산	15.4	18.9	37.3	6.5	7.0
	울산	8.1	15.2	5.3	27.8	4.1
	경남	13.4	20.0	5.7	5.5	34.8
2015년 (B, %)	부산	16.2	15.5	38.6	4.6	5.5
	울산	11.0	14.2	4.8	25.5	4.4
	경남	15.6	16.1	7.9	4.1	39.1
비중 변화 (B-A, %p)	부산	0.8	-3.4	1.3	-1.9	-1.5
	울산	2.9	-1.0	-0.5	-2.3	0.3
	경남	2.2	-4.0	2.2	-1.5	4.3

Ⅲ. 성장요인 분해 분석 및 모의실험 결과

(성장요인 분해 분석*)

* 자가지역과 동남권내 타지역, 수도권, 기타권역으로 구분하여 2005~2015년 기간의 총산출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

- 성장요인 분해 모형을 통해 지역별 성장요인 기여도를 분해한 결과, 권역 내 산업연계 약화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각각의 성장에 대체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총산출 성장(gross output growth)에 대한 투입계수변화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부산(+1.3%p)을 제외한 울산(-5.0%p), 경남(-2.0%p)에서 투입계수 변화가 지역 성장에 부(-)의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울산, 경남 지역에서의 성장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는 수도권(울산 +21.9%p, 경남 +21.5%p)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남

(모의실험)

- 중간재 투입계수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부산, 울산, 경남 모두 중간재 산출이 더 늘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

* 2005년의 투입계수가 2015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최종재 산출은 실제와 동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가정

- 모든 지역에서 실제 성장률이 모의실험 성장률을 하회(부산 -3.2%p, 울산 -39.8%p, 경남 -3.2%p)

— 이는 각 지역 중간재 투입계수의 수도권 비중 증가 및 동남권역 비중 감소가 없었다면 중간재 산출 규모가 더욱 컸을 수 있음을 시사

동남권 지역별 산출 성장요인 직·간접 기여도¹⁾
(2005년~2015년) (단위: %p)

지역	자기 지역	동남권 ²⁾			수도권	기타 권역	합계
		최종재 변화	투입계수 변화	전체			
부산	58.9	18.7	1.3	20.0	12.2	8.8	100
울산	64.5	8.6	-5.0	3.6	21.9	10.1	100
경남	63.0	9.1	-2.0	7.0	21.9	8.0	100

주: 1) 해당기간 전체 총산출 성장을 100으로 환산
2) 자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동남권의 기여도

동남권 지역별 중간재 산출 모의실험 결과

산업	2005년 중간재 산출 (십억원)	중간재 증가분 (백만원)		중간재 성장률(%)		차이 (A-B, %p)
		실제	모의 실험	실제 (A)	모의 실험 (B)	
부산	45,151	34,624	36,085	76.7	79.9	-3.2
울산	71,875	31,878	60,518	44.4	84.2	-39.8
경남	66,731	53,665	54,252	80.4	81.3	-0.9

IV. 정책적 함의

- (권역내 산업연계 강화 필요성) 동남권내 산업연계가 수도권과의 산업연계보다 강화될수록 수도권과의 성장률 격차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동남권내 지역간 산업연계 강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 동남권내 산업별 연계도와 수도권 동일 산업과의 산출 증가율 격차를 회귀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중간재의 역내 의존도가 높을수록 수도권 동일 산업과의 생산 증가율 격차가 작은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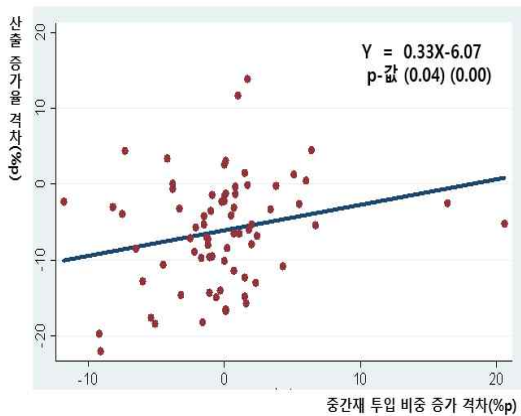
□ (정책 수단을 통한 연계 강화) 동남권 지역 상호간 최종수요 구매가 산업연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추어 재정 투입 등 정책 수단을 통해 산업연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

○ 회귀분석 결과 2005년 대비 2015년의 최종재 수요 증가율이 수도권 동일 산업보다 클수록 해당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증가폭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우선순위 설정) 각 지역별로 승수효과가 큰 산업과 지역간 산업연계 제고 효과가 큰 산업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정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거버넌스 구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필요

○ 운송장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고성장 산업중 권역 내 산업연계가 약화되어 왔고 권역 내 승수효과가 큰 산업에 대해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

동남권 산업별 인근지역과의 산업연계와 성장률 간 관계¹⁾



주: 1) 각각의 점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별로 개별 산업의 산출 증가율 격차와 중간재 투입 비중 증가 격차를 나타냄

최종재 수요 증가율과 생산유발계수 변화¹⁾

설명변수	모형 1	모형 2
상수항	0.015 (0.36)	-0.081*** (0.00)
최종재 수요 증가율 차이	0.0008** (0.03)	0.0006* (0.08)
2005년 생산유발 계수	-0.492*** (0.00)	-
2005년 생산유발 계수 차이	-	-0.481*** (0.00)
R2	0.37	0.40
F	18.0***	22.2***
관측치 수	62	62

주: 1) *, **, 및 ***는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